

루닛-美 국립암연구소(NCI), AI 바이오마커 기반 '암 데이터 분석' 착수

- 방대한 NCI 임상시험 데이터에 루닛 AI 바이오마커 솔루션 도입
- AI로 종양미세환경 등 분석해 '환자별 맞춤형' 암 치료 전략 발굴

[2025년 3월 31일]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이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이하 NCI)와 함께 암 치료 연구에 나선다.

루닛은 NCI와 AI 기반 암 연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NCI는 미국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NIH)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가 암 프로그램(National Cancer Program)을 총괄하며 암 예방, 진단, 치료, 생존자 관리를 총망라하고 있다.

루닛은 미국을 넘어 글로벌 암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춘 NCI가 차세대 암 연구를 위해 AI를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AI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NCI가 보유한 각종 암 관련 데이터에 AI 바이오마커 탐색 솔루션인 '루닛 스코프 IO'와 '루닛 스코프 uIHC'를 적용, 심층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의 종양미세환경(TME) 및 면역 표현형(IP)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항암치료 전략과 환자 예후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향후 주요 국제학술지 논문 제출 및 글로벌 학회 공동 발표 등을 통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같은 양측의 협업은 궁극적으로 암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NCI가 루닛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루닛 AI 솔루션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인정한 결과"라며 "NCI의 탁월한 연구 역량과 방대한 임상 데이터에 루닛 AI를 접목하면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암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놀라운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트너십은 루닛이 지난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역항암 학술단체인 미국면역항암학회(SITC)와 AI 기반 암 치료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미국 국가 연구기관과 맺은 의미있는 협업이다. 루닛은 글로벌 암 연구 기관들과의 계속된 협업을 통해, 바이오마커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주요 의료 네트워크 및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